

# GM, 배송용 전기트럭 공개... 창고서 집까지 전동 적재·배달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 속도  
플라이카·자율주행차 콘셉트 공개  
페덱스에 연내 500대 공급 예정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GM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 향후 사업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배송용 전기트럭 시장 진출 선언과 플라이카와 개인 자율주행차량 콘셉트 등 다양한 신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메리 바라 GM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CES 2021 기조연설에서 배송용 전기트럭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하는 브라이드롭(BrightDrop) 사업 계획을 밝혔다. 브라이드롭은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며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직원 안전 및 화물 보안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지속 가능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메리 바라 CEO는 "브라이드롭은



2021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메리 바라(Mary Barra) GM 회장 겸 CEO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하고 연결된 제품의 생태계를 제공한다"며 "배송 업체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라이드롭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스마트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며 "GM은 전동화와 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 텔레매틱스 및 기업 차량관리에 대한 엄청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물건을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송되도록 상용 고객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M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5년

까지 미국에서 택배, 음식 배달에 대한 시장 규모가 8500억달러(약 93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GM은 브라이드롭 사업의 비전을 밝히며 CES 2021에서 전동식 팔레트 EP1과 전기밴 EV600을 공개했다. EP1은 택배 밴에서 현관까지 상품을 배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물리적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전동식 팔레트다. 보행 속도에 따라 최대 시속 4.8km까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모터가 내장돼 있다. 상품은 창고에서 목적지에 따라 통합되고 EP1에 적재된다. 특히 EP1의 위치, 배터리 상태 등을 원격



브라이드롭 EV600.

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GM은 대형 전기밴 EV600도 선보였다. EV600에는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 개발한 얼티움 배터리 플랫폼이 탑재된다. 기존의 전기 배터리 셀보다 60% 더 많은 에너지 용량을 생성하고 효율성을 위해 평평한 직사각형 파우치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EV600은 완충 시 최대 250마일(약 402km)의 주행이 가능하다. 또 120kW DC 고속충전을 통한 시간당 최대 170 마일(약 274km)의 주행 거리를 확보한다. 우선 GM은 연내에

배송업체 페덱스에 전기밴 EV600 500대를 공급기로 했다. 이후 내년 초부터는 다른 업체들에도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GM은 이날 친구나 가족이 목적지로 가는 길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는 디자인 개념을 채택한 캐딜락 헤일로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개인 자율주행차량 콘셉트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동형 거실처럼 내부를 꾸민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공개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VTOL)는 GM의 첫 항공 이동 수단이다. 90kWh 전기 모터를 통해 4개 프로펠러를 구동하며 최대 시속 90km의 속도로 건물 옥상을 오갈 수 있다.

마이클 심코 GM 글로벌 디자인 부사장은 "전기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인 항공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VTOL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편리함이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GM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모두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박일평 LG전자 사장(왼쪽)이 게리 샤피로 CTA CEO와 원격으로 대화하고 있다. /LG전자 글로벌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 박일평 "경쟁자도 협력"... 열린 자세 강조 (LG전자 사장)

"뉴노멀 시대, 분야간 경계 허물어야"

박일평 LG전자 사장이 미래 혁신을 위한 '열린' 자세를 강조했다. LG전자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LG전자는 12일(미국 현지시간) CES 2021에서 'LG 퓨처 토크'를 진행했다. 박 사장과 패널들이 '함께 만드는 혁신'을 주제로 미래 기술과 비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패널로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게리 샤피로 CEO, 토발라 데이비드 래비 CEO, 엘레먼트 AI 장 프랑스와 가네 CEO, 룩소프트 드미트리 로스치닌 CEO 등이 초청됐다.

우선 박 사장은 최근 LG전자가 개발한 ▲배송로봇, UV-C램프를 이용한 살균봇 등 다양한 LG 클로이 로봇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스마트 열화상 카메라 기술 등을 소개하며 독보적인 기술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전례없는 빠른 변화에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플랫폼 경쟁력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경쟁자와도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협력에 무게를 뒀다.

게리 샤피로 CTA CEO도 오픈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LG 이노베이션 카운실'을 좋은 사례로 꼽았다. 모든 분야에서 융합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가치사슬이 복잡해지면서 어떤 회사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 어렵다는 것.

이노베이션 카운실은 다양한 인사인력으로 미래기술과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는 단체로, 박 사장의 말을 받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전문가 12명과 함께 한다.

토발라 데이비드 래비 CEO는 LG 씽큐 앱을 폭넓은 고객 경험을 제시하는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호평했다. 토발라는 LG전자와 협력해 밀키트를 LG 씽큐 앱으로 스캔하면 알아서 최적의 조리 코스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엘레먼트 AI 장 프랑스와 가네 CEO는 LG전자는 고객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며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연구해 고객 통찰력을 반영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엘레먼트 AI는 LG전자와 CES2020에 함께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발표했다. 효율화와 개인화, 추론과 탐구 등이다. /김재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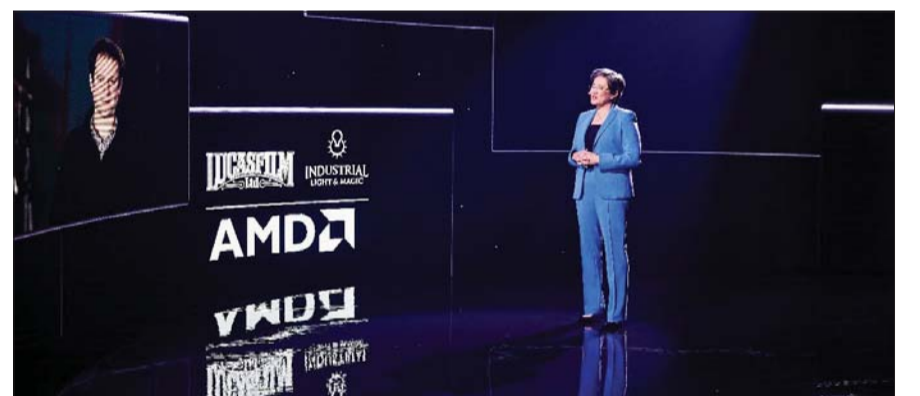
## AMD, 듀얼코어 성능 3세대 '에픽' 선보

리사 수 박사, CES2021 기조연설  
데이터센터 활용 서버용 신제품도

AMD가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모습이다.

AMD CEO인 리사 수 박사는 12일(미국 현지시간) CES2021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다양한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리사 수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반 환경으로의 전환이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AMD가 소비자들의 생산성, 학습, 상호 간 연결, 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AMD는 주요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PC, 게이밍,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의 가능성을 지속해서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사 수 박사는 엔리케 로레스 HPC CEO와 양 위안칭 레노버 CEO, 루카스 필름 프랑수아 샤르다보안 기술담당 부사장과 F1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 등



루카스필름 기술 담당 프랑수아 샤르다보안 부사장과 대화하고 있는 AMD CEO 리사 수 박사. /AMD

을 초대해 AMD의 고성능 컴퓨팅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했다. 이어서 리사 수 박사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새로운 제품군도 소개했다. 모바일 프로세서 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활용할 서버용 신제품까지 선보였다.

3세대 에픽 프로세서는 7나노 공정을 적용한 새로운 서버용 CPU로, 32코어로 경쟁사 제품을 68%까지 넘어서는 듀얼 코어 성능을 낼 수도 있다. 가격대

비 성능뿐 아니라 보안성 등에서도 개선을 이어가면서 서버 시장 점유율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MD는 에픽 프로세서와 라데온 인스팅트로 12페타플롭스 초고사양 컴퓨팅을 기증,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젠3 아키텍처를 이용한 모바일 프로세서 제품도 나왔다. AMD 라이젠 5000시리즈 모바일 라인업이다. /김재용 기자 juk@

## 캐딜락, 얼티움 플랫폼 기반 대형세단 공개

무게 중심 낮추고 이상적 비율 갖춰

캐딜락이 얼티움 배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형 세단도 만든다.

캐딜락은 12일(미국 현지시간) CES 2021에서 셸레스틱 쇼카를 공개했다.

셸레스틱은 얼티움 배터리 플랫폼을 대형 세단으로 만든 모델이다. 얼티움 플랫폼이 다양하게 셀을 배치할 수 있다

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무게 중심을 낮추고 이상적인 비율을 갖춘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4륜구동과 전륜, 후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쓸 수 있다.

고급스러움도 배가했다. 소재는 수제로 사용하며, 차량 소유주 개성에 따라 디자인한다. 프레임이 없는 폴사이드 글라스 선루프로 개방감도 극대화했다. 4분할로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해 사용자별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

전면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운전자와 조수석에서도 개별로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독립화했다. 뒷좌석 스크린도 마찬가지로.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콘솔 스크린은 개별 세팅도 가능하게 배려했다.

캐딜락은 "셸레스틱 쇼카는 캐딜락의 미래 플래그십 세단으로 캐딜락의 개척자 정신을 상징하며, 럭셔리 EV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